

발간등록번호

2019-기획총괄-004

2019

1인 가구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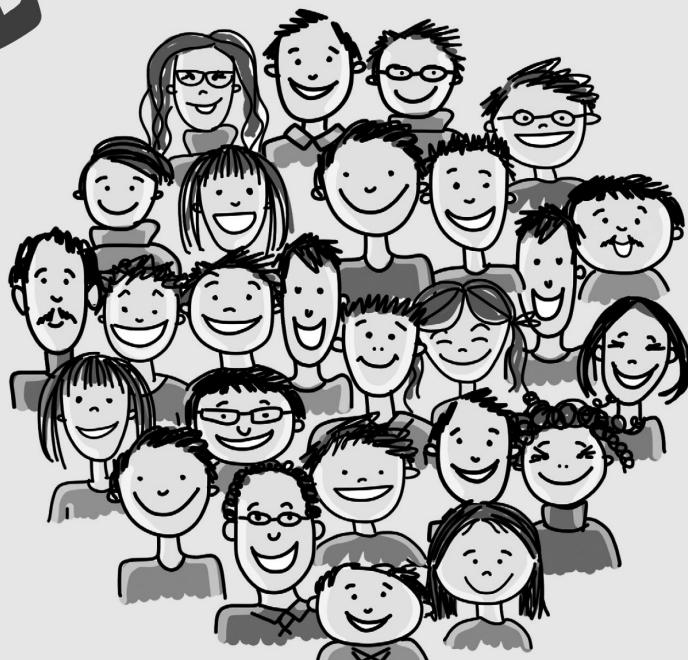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2019-기획총괄-004

2019

1인가구포럼



2019. 7. 10. (수) 15:00 - 17:00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1층 다목적홀

세부일정	7
① 청년 1인가구 대안적 공동체 가구에 대하여	9
-송현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장	
②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13
-진혜린 『서울식당』 출연자	
③ 기러기아빠의 혼자서도 잘해요	19
-허용무 정화예술대학교 총장	
④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25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⑤ 서울시 1인가구의 모습	31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⑥ 1인가구 기본계획안	39
-김경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팀 팀장	

일자	시간		내용	
7월 10일 (수)	15:00~ 15:30	30'	개회(권금상 센터장), 축사(이병도 의원) 진행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30~ 16:00	30'	“나는 ○○○ 1인가구입니다.” 자신의 이야기 소개	
			1. 청년 1인가구 대안적 공동체 가구에 대하여	송현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장
			2.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진혜린 『서울식당』출연자
			3. 기러기아빠의 혼자서도 잘해요	허용무 정화예술대학교 총장
	16:00~ 16:10	10'	휴식	
	16:10~ 16:30	20'	“1인가구 사회공감 토론”	
			1.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2. 서울시 1인가구의 모습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3. 1인가구 기본계획안	김경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팀 팀장
	16:30~ 16:50	2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50~ 17:00	10'	폐회(권금상 센터장)	

1

청년 1인가구 대안적 공동체 가구에 대하여

—
송현정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사무국장

—

청년 1인가구 대안적 공동체 가구에 대하여



내집을 찾아라

1. 남성 대학생 A

기나긴 수험생활을 끝내고 신촌에서 대학생활을 하게 된 남학생 A. 하지만 집은 왕복 4시간의 경기도 수원이다. 학교 기숙사는 수용률이 적어 경기도권은 신청조차 안된다. 학교 주변 원룸을 알아보니 기본 1000 / 50 이다. 고시원도 알아보지만 2평 남짓한 공간에서 4년 동안 생활한다면, 우울증이 올 것 같다. 저녁 아르바이트는 월급이 90만원이 채 안된다. A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어디있을까?'

2. 여성 직장인 B

지옥 같았던 취업난을 뚫고 입사를 하게 된 여성 B. 문제는 집은 홍은동에, 직장은 강남에 있다. 출퇴근의 지옥철을 경험하다 직장 주변의 집을 알아본다. 원룸을 알아보니 대부분 1000 / 70 언저리다. 그렇게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 관악구까지 왔다. 보증금과 월세는 강남보다 낮지만 집들이 낡았고, 어두운 골목길이 많다. B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안전하고 저렴한 집은 어디있을까?'

한국 부동산과 청년 1인가구

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다. 내가 살 집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불려갈 집들은 모두 사는 (Living)곳이 아니라 사는(Buying)것이다. 이렇게 모든 투기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은 비합리적으로 폭등했고, 청년은 여기에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은 시점에서, 지금까지 보급된 주택이 대부분 4인가족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다. 점점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는 가운데 청년 1인 가구는 역시나 약자의 입장이다. 결국 낡거나 위치가 안 좋아 팔리지 않는 주변부의 집들이 '빈집 활용'의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배분된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층의 RIR(소득대비 주거비 지출)은 약 20%로 조사되었지만 이는 정말 말 그대로 평균이다. 당장 취업하면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에서 월세로 50만원이 나가면 이미 소득의 1/4이 빠진다. 나머지 돈에서 적금을 빼면 생활비는 얼마 남지 않는다. 정말 '생활'밖에 못한다.

청년 1인가구의 고민

결론적으로 청년이 1인가구로서 집을 찾는다면 먼저 임대료가 문제다. 고시원조차 방 안에 화장실이 들어가면 50은 거뜬히 넘는 상황에 청년에게 부담가능한 집을 찾기는 정말 힘들다.

최근에 안전에 대한 이슈도 핫하다. 특히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집을 볼 때 안전은 최우선 순위 중 하나다. 안전한 귀갓길 뿐만 아니라 여성이 집에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위험의 순간에 처해있다. 신발장에 남성 신발을 놓거나 남성 속옷을 빨래대에 널어 놓는 이야기는 이미 식상한 수준이다.

청년 1인가구의 고립도 문제다. 학교나 직장에서 늦게 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밥먹고 자기 바쁘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점점 인간관계가 협소해지고 생활패턴이 단순해진다. 때문에 요즘 '살롱문화'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공간과 콘텐츠를 제공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히 공간과 이야기 거리를 제공했을 뿐인데, 젊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모여든다. 그냥 동호회나 동아리 만드는 것에 무슨 돈을 그렇게 쓰냐고 기성세대는 반문하겠지만, 지금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돈을 써야 공간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청년들은 관계가 중요하다.

대안적 주거; 모여사는 청년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공동체 주택, 사회적 주택이라는 단어가 포털 인기 검색어에 올라가고 있다.

우선 청년들이 모여살기 시작하니 임대료가 저렴해진다. 주택 가격 자체가 높아, 임대료를 선뜻 낮추기 힘들기 때문에 뜻이 있는 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이 중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도 있다. 집을 투기가 아닌 공공재와 공유재로 보는 시각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료를 무리하게 높일 필요가 없어진다. 임대료를 시세의 60~70%까지만 떨어트려도 청년들의 눈에 금방 들어온다.

같이 사니 생활비도 저렴해 진다. 대량으로 사야하는 식재료와 생활용품들을 공동구입하니 비용도 줄고 낭비도

준다. 또 내가 집에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택배를 받을 수도 있고, 애완동물도 대신 돌봐줄 수도 있다.

그리고 집이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 밤에 같이 잠깐 마트를 나갈 친구가 있고,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생각 이상으로 큰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달팽이집'(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주택)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안전'을 큰 장점 중 하나로 뽑는다.

또한 고립이 아닌 연결의 고리가 생긴다. 주거공동체의 형성으로 최소한의 고립이 해결되고 그 이상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살롱문화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단 이들에게는 공간과 공동체가 있다. 즉 비용을 지출하며 외부에서 관계를 찾을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다. 판소리 수업, 독서 모임, 여행, 플리마켓 등 다양한 소모임과 만남들이 달팽이집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지성이 생기듯, 주택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쌓인다. 입주민의 자치적 주택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달팽이집의 경우 시설 문제나 공과금 등 혼자 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여름에 에어컨 점검을 받을 때도 집별로 따로 부르기 보단 옆집, 앞집과 같이 불러 출장비를 아낄 수 있다.

물론 위의 이야기들은 식구들간의 자유로운 대화가 기본 전제다. 그래서 달팽이집은 매달 반상회를 열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갖는다. 모두가 의견을 내고 뜻을 모아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만족도는 물론 집에 대한 자기 효능감도 높아진다.

같이 사는게 꼭 편하지는 않다. 서로 지켜야 할 규칙과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 등 신경써야 할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하다. 대화도 안되고, 생활패턴도 달라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년들이 모이니 혼자 살 때의 문제를, 한국 부동산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편처럼 떨어져 있던 청년들이 모이자 정부와 사회도 이들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주택, 투기가 아닌 주거공간으로서의 집의 기능 회복,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등 우리가 안고가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많지만 혼자가 아니기에 천천히 나아갈 수 있다. 청년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2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
진혜린

『서울식당』출연자

—

안녕하세요.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은 ‘선택적’ 비혼주의 1인가구 진혜린입니다. 제가 여기서 선택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 비혼주의가 아니라 제 가치관에 따라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결혼을 선택할 의사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이에요. 20대 비혼주의 여성 1인가구를 대표해서 말하는 만큼 저 역시 이 자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공주님은 왕자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동화를 보면서 저 역시 영원한 결혼을 꿈꾸던 때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 본 동화와 만화영화는 다 결혼으로 끝이 났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결혼을 배제한 적이 없었죠. 결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러다 학부생 때 여성학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여성이 투표권을 갖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지 100여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죠. 저는 아주 당연하게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사회의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행위로 인해 주체적인 삶을 상당 부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결혼이 여성에게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남성도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짊어지게 되니까요. 그렇다 해도 한국식 결혼은 여성에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길 요구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여성이라고 해도 결혼 후에는 경력단절녀가 되고, 독박육아로 인해 세상과 멀어지는 일이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출가외인이 되어 우리 집보다는 시댁에 더 신경을 써야할 때도 많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현모양처라는 말이 있죠. 어진 어머니이자 착한 아내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말에 여성의 엄청난 희생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출산을 해서 아이를 잘 키워 내야하고, 또 당연하게 불평불만 없이 내조를 하는 것이 여성의 일이라는 뜻이니까요.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이제 그 당연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의 당연함을 당연하게 유지해야겠죠. 아직까지는 결혼이라는 단어 속에 여성의 가사노동과 출산, 육아, 경력단절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개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경력을 유지한다고 해도 독한 X이 되어버리는 현실이니까요. 그럴 바에야 그냥 혼자서 떳떳하게 살겠다는 생각이 비혼주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는 ‘선택적’ 비혼주의자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해결되면 제가 원하는 주체적인 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를 깰 수 있다면, 결혼을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가사노동과 육아는 여성이 해야 하는 일이며, 출산을 하는 것이 여성의 최대임무라는 생각 같은 것들이죠. 제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할 자신도 없고, 열심히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제 몸이 망가지는 게 두렵습니다. 또 시부모님보다는 저를 키워 준 부모님이 더 애틋하고 소중할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사실인데 결혼은 이 모든 것을 여성이 해내게끔 요구하고 있죠.

“나는 결혼하더라도 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어. 결혼으로 끝을 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아니니깐. 가사노동은 두 사람이 나눠서 했으면 하고, 아이가 없는 삶을 원해. 하지만 만약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다면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었으면 해. 불필요한 가족모임에 참석해서 며느리 노릇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고, 명절에는 우리 집과 시댁에 가는 순서를 번갈아 바꾸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구했을 때,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아주 이상한 요구는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여성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친한 친구와 여행을 가도 많은 걸 배려하고

포기해야하는데 평생을 함께 하는 결혼에 왜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게만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것들이죠. 스물다섯 살이 넘어가면 팔리지 않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서른이 훌쩍 넘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여성으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되면 집에서 밥이나 하는 사람 혹은 맘충, 어떻게든 복직해서 유리천장 바로 아래까지 올라간다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다 열거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여성이라면 이 모든 것에 공감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같은 팍팍한 시선이 훨씬 관대해지고 결혼할 상대방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결혼을 제 미래에 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포기하지 않고 싶다고 말해도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저도 제 인생에 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비혼주의자로 계속 살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음이 맞는 상대방과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주변에도 저처럼 비혼과 결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1인가구가 참 많아요. 지금은 가치관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니까요. 지금보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비혼과 결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사랑만으로 결혼을 택할 수 있을까요? 여성이 희생하며 포기해야하는 것들과 남성이 혼자 짊어져야하는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기러기아빠의 혼자서도 잘해요

허용무

정화예술대학교 총장

조기유학으로 시작된 기러기 아빠 생활

2001년 가을,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 중이던 나는 중1, 고1이던 아이들이 훗날 세상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조기 유학을 결심했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친구에게 청하여 3개월의 준비과정 끝에 네 식구의 다부진 각오만으로 시작된 ‘가족 모험’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당시 조기 유학을 준비하던 나에게 동료 교수들은 조기 유학의 양대산맥을 잘 넘겨야 성공적인 유학 생활이 가능함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첫째는 ‘학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고, 둘째는 ‘아이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인성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아내와 두 아이를 떠나보내기 전부터 “조기 유학은 가족 모험이고 가족 모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노력 없이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유학 생활 중에는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했다.

특히, 전화나 이메일보다는 편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국인의 사고방식, 따뜻한 마음,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 등을 펜 끝으로 진솔하게 담아내려 하였다.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낯선 미국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필적에서 물어나는 사랑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고 새 힘을 얻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유학 준비 기간이 짧았던 만큼 아이들은 문화, 언어, 학업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럴 때마다 부모로서 인내하며 정성을 쓸으면 아이들 스스로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접근하였다. 때로는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때로는 따끔한 채근으로 격려하며 정신적 힘을 길러주는 데 집중하였다.

오롯이 혼자 버텨내야 했던 긴 터널 같은 여정

기러기 아빠로 살며 견뎌야 하는 내 몫의 고통은 생각보다 컸다. 미국에 가족을 남겨놓고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어느 순간 다른 세상 속으로 ‘옮겨진’ 듯했다. 유교적 가풍의 충청도 집안에서 2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가부장적 성향이 몸에 밴 채 성장한 나에게 가족이 부재로 인한 곤란함은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들로부터 시작했다.

부엌에는 들어가 본 적도 없었기에 당장에 밥 짓는 법, 세탁기 돌리는 법, 청소기 작동법부터 하나하나 익혀갔다. 하지만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츰 일상의 한귀퉁이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다. 불꺼진 현관을 지나 텅 빈 집안에 홀로 놓이면 그 외롭고 아린 마음은 어찌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였다. 방문을 열고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 의자에 앉아보고, 녀석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을 쓰다듬어 보고, 사진을 보며 추억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다가는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술 한잔을 하게 되고, 그렇게 차츰 술에 의지하는 횟수와 양이 늘어갔다. 특히, 회식자리가 많은 금요일에는 늘 술에 흥건히 취한 채 귀가했는데, 집에 와서도 이국의 가족이 그리운 마음에 한잔을 더 들이켜곤 했다. 그리고는 토요일 오전 식탁에 명하니 않아 늦은 아침으로 해장을 하면서 대부분의 기러기 아빠처럼 술로 찌든 주말을 보내기 일쑤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아이들 뒷바라지를 계속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해 왔다. 그때부터 퇴근 후엔 잠들 때까지 책을 보거나 아이들에게 전할 이야기리를 메모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TV나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또 토요일에는 무조건 등산이나 운동, 그렇지 않으면 시골집과 처갓집을 왕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차츰 생활에 활력이 돌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면서 마음의 평안도 되찾았다.

조기유학으로 인한 기러기 아빠의 삶은 꽤나 긴 여정이기에 그 과정 속에서 항상 긴장하고 살 수 만은 없다. 나태해졌다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넘어지기도 하는 수많은 반복의 삶일 수밖에 없다.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고 나타해졌을 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삶이 기러기 아빠의 삶이다.

기러기 가족의 삶과 현실에 대한 사회적 접근 필요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는 동안 나는 조기 유학을 보낸 자식들에 대한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 학업은 물론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식들에게 지속적이며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아버지의 심정과 가족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내가 스스로 공부한 바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인생 선배로서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해주고 싶은 말이 생각나면 가던 길도 멈추고 메모해 두었다가 전달하곤 했다. 훗날 아내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나의 이런 노력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사춘기를 큰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한다.

수많은 형태로 이루어진 가족의 대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점점 굵게 만들었고,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나와 아내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며 아들딸 모두 잘 자라주었고 아들은 생물의학공학, 딸은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기러기 가족의 생활은 마무리되었다. 특히, 범죄심리학에 관심이 많던 딸아이의 경우 좀더 명성이 높은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권유했으나 명성이 조금 낮아도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내용의 메일을 3장이나 보내오는 등 자기 의사표현이 강한 아이로 자랐다. 이제는 두 아이 모두 결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꾸렸고, 한국에서 군생활을 하며 한국적 사고가 강했던 아들은 귀국하여 터를 잡았다.

나는 자수성가해 이룬 모든 것을 자식의 조기 유학을 위해 온전히 투자한 케이스다. 그러다보니 한동안은 노후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곤 했다.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계획은 기러기 가족이 다함께 풀어가야 할 영원한 과제인 것 같다. 터널 끝에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많은 기러기 가족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의 시간을 현명하게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족’의 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될 만큼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러기 가족을 포함한 1인 가족의 당면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양한 형태의 1인 가족의 삶과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는 안정망과 지원체제 마련이 뒤따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4

1인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

—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1인가구 정책의 현황과 방향

서울시의원 이 병 도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변화와 그로인한 가치관의 변화를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2001년 150만 가구에서 2016년 약 120만 가구로 줄어들었지만 1인가구는 2001년에서 2015년 사이 약 54만 가구에서 112만 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서울시의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인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제까지 다인가구 중심의 가족정책 변화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런 정책설계의 과정에서 1인가구는 하나의 동질한 집단이 아니라 연령, 성, 개인적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이다. 세대별, 특성별 1인가구 정책 지원영역이 다른데 고령 1인가구는 돌봄영역에 관한 정책과 사업이 두드러진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목적은 고령 1인가구의 돌봄과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주거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정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사랑의안심폰 사업, 어르신 무료급식제공, 서울재가 관리사 사업, 사랑의 안심폰 지원,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고령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안전과 정신건강, 식사지원에 한정하고 있다. 고령 1인가구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 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을 들 수 있다. 1인가구 구성원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들이 계획한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함으로써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다만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상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안전정책도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서울시는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안심귀가스카우트, 서울지하철 보안관, 서울시 셉티드 사업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안심택배서비스와 안심귀가스카우트를 꼽을수 있다. 안심택배서비스는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험 또는 택배수령이 어려운 여성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50개소에서 2017년 190개로 확대하였다. 안심택배서비스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거주지까지의 거리, 설치위치, 적은 공급량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심야시간대의 귀갓길을 도와주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역시 이용시간대와 정책이용 여성의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에게 주거안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성안전정책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 중 중요한 주거분야의 정책으로는 1인가구만을 위한 정책보다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지방출신 서울시 대학교 재학 중인대학생을 위한 희망하우징, 도시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액이 50%이하 1인 단독가구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하는 원룸형 임대주택 등이 주요 지원정책이다. 그러나 공공에서의 지속적인 공급의 한계를 가짐과 동시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계를 보인다. 특히 주거공급 및 세대융합의 일환으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세대의 소극적 참여와 낮은 지원으로 인해 크게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1인가구의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1인 가구만의 주거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돌봄, 고독사 한정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정책 또는 사업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1인가구 지원에 대한 법제가 우선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이나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1인가구는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 외에도 사회적 상황과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비자발적 1인가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그런데 비자발적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 및 소득 수준과 주거 사정 그리고 건강상태 등이 좋지 않은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위험을 당사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사회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인가구 형성의 자발성 여부나 연령대 및 성별 차이와 무관하게 혼자 사는 경우 가족 내의 정서적 지원을 구하기 힘들고 갑작스러운 질병 등 자신이 해결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지원체계가 가족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토한 규칙적인 생활과 취사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역시 1인 가구가 지닌 취약성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즉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의 자기 통제, 정서적 지원을 같이 나누고 유사시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가 개인적 차원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들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제 누구나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확률이 높아졌다. 또한 우리사회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생긴다면 이혼을 하거나, 이혼후 필요에 의해 재혼을 하는 경우 등 가족구성과 유지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부모 역시 한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혹은 통계로는 잡히지 않지만 제도 결혼 대신 동거를 선택하거나 혼인·혈연·입양외 삶의 동반자로서의 공동체적인 가족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의 선택이 강조되는 삶, 고령화 시대 길어진 노년기를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이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을 경험할 일이 많아졌다. 이들이 어떤 가족형태를 선택하든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정해 주는 가족의 삶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5

서울시 1인가구의 모습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탈연결 사회에서 공동체의 균열을 막기 위한 노력 _서울시 1인가구의 모습을 중심으로

변 미 리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선임연구위원, 사회학)

인구와 가구 문제 관련 이슈들

인구와 가구특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하나는 인구총량의 줄어들고 있는 서울에 대한 관심으로 탈서울행의 결과 천만 인구가 깨지고 하향 국면으로 접어든 수도 서울의 인구추세에 관한 것과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관한 인구총량과 인구이동에 관한 것이다. 인구문제, 특히 인구크기는 모든 지역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므로 일견 타당한 관심인 듯하다. 인구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하나의 관심은 인구구조의 문제로 이는 가구특성과 세대특성을 아우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 구조의 변형, 변화의 속도, 인구코호트들이 집단화된 성격으로서의 세대 문제 등이 오늘날 인구문제의 핵심이다.

서울의 인구는 인구 총량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구성적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2000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 이상)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0년에는 그 비율이 11.3%에

달하였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6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5). 2026년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할 고령 인구의 수는 31.4명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든 2000년의 10.2명에 비해 세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고령 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이 26년 사이 세 배로 가중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와 밀레니엄 세대(1981~1997, 2015년 기준 18~34세 연령집단)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인구부양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출생 코호트이다. 2026년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사회적 피부양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을 때, 이들의 부양을 가장 많이 책임지게 될 코호트가 바로 지금의 밀레니엄 세대이다. 전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총 1,18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 서울의 밀레니엄 세대는 총 255만 여명으로 서울 인구의 25.4%에 달한다(2015년 기준). 특히 청년세대를 포함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주거, 결혼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인구문제가 야기할 정책이슈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의 증가와 탈연결 사회에서 살아가기

1인가구와 관련해서 이들 집단에 대한 거시, 미시적 렌즈를 통한 다차원의 분석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1인가구의 총량적 성격 뿐 아니라 성별, 생애주기별, 지역특성이 반영된 관점에서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30%에 달하는 서울의 1인가구는 20년 전에는 그 비율이 9%에 지나지 않았다. 30년 전인 1980년, 1인가구란 말이 낯설었던 그 시기, 단지 4.5% 사람들만 혼자 살았다. 지난 30년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무려 10배 넘게 늘어났다. 불과 몇십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무엇일까? 인구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非)혼과 만혼의 증가, 기러기 가족 증가, 이혼·별거 등 경제적 빈곤함에 기인한 가족 해체,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독신가구의 증가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

1인가구 증가 원인이 복합적인 것처럼 1인가구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소위 ‘산업예비군 그룹인 청년 1인가구’, 4~50대 ‘불안한 독신자 그룹’, 실버세대인 고령자 1인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독신의 삶을 누리는 ‘트렌드세터 골드족’ 등 4종4색의 1인가구가 서울에서 살아간다. 이들 중 비자발적 1인가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한 독신자들, 청년 1인가구, 고령 1인가구 집단이 갖는 공통의 문제는 ‘고립’과 ‘사회적 빈곤’이다.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서울의 평균 이혼율보다 2배가량 높은 이혼/별거율로 인한 가족 해체의 결과이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정도는 공공의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다. 혼자 사는 40대 중년층은 부부가구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의료보고가 있다. 청년1인가구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것이 ‘밥 먹는 문제’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높고 어떤 경우 저녁도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때우는’ 게 되었다.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내에서 가장 높으며, 노인자살률 또한 노인 10만명당 64.9명으로 일본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공동체 균열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

1인가구 증가 현상이 야기할 사회적 이슈들은 세대별 의제로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청년기 1인가구의 주거와 안전의 문제, 중년 1인가구의 노후와 사회관계의 문제, 고령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과 관계의 부재 문제에 대한 실증적 증거에

근거하여 의제 영역과 개별 정책이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고령자 1인가구는 여러 의미에서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집단이다. 반면 이들의 삶은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과 낮은 삶의 질, 공동체 연결성이 점차 낮아지는 관계망 현황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개인의 인생주기에서 중장년층 세대가 느끼는 삶의 불안정성과 고립감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고령자 1인가구에 대한 다차원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이들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정책의제나 사회의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지역중심의 연결망을 통한 지원서비스 정책은 지역의 동질성을 파악한 후(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기반한 관계망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1인가구의 경우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고령1인가구의 경우 나이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만큼이나 혼자 살기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고립된 고령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문제도 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여성1인가구의 경우 노인여가시설 이용경험이 50%를 약간 밑돌며(서울여성가족재단, 2016), 1자치구 1시설로서의 노인여가시설이 고령여성1인가구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미 지역사회에 기반시설화 되어있는 노인여가시설을 고령여성1인가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프로그램 영역에서의 제안), 이들을 위한 지원을 노인여가시설을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는 체계나 제도를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령1인가구는 중고령자와 유사한 낮은 경제지위, 고립감,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 삶의 마무리 단계로의 이행을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는 작은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맞이할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영역은 이러한 인구·사회적 변화 속도에 조응할 만한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의 정책준비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되어야 할 이슘이다. 오늘의 포럼이 1인가구의 증가로 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의 균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1인가구의 문제는 온전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사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의 문제는 결국은 그들 사회 전체가 함께 다루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6

1인가구 기본계획안

—
김경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팀 팀장
—

1인가구 지원 1차 기본계획('19~'23년)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생애주기 및 계층별 특성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맞춤형 정책설계를 통해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코자 함.

I

정책 환경 및 실태

2010년 이후 인구수는 지속 감소하는데 비해 가구수, 특히 1인가구수가 급증하고 있음

- 1인가구 증가는 비혼(장기화), 이혼, 사별, 주말부부, 기러기부부 등 결혼중심의 획일성에서 탈피한 생애모델의 다변화에서 기인
 - 1인가구 : 854천 가구('10년, 전체가구의 22%) → 1,115천가구 ('15년, 전체가구의 28%) → 1,118천가구('17년, 전체가구의 31%)

구분	2000년	2010년	2015년	2017년
인구수	9,895천명	10,064천명	9,904천명	9,741천명
가구수	3,109천명	3,751천명	3,914천명	3,948천명
1인가구수	502천명	855천명	1,115천명	1,180천명

청년, 중장년, 노년의 전세대에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층에서 두드러짐

- (연령별) 청년층 47%, 중장년 28%, 노년 24%로 청년 가구수가 제일 많으나 전반적 추세로 모든 세대별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점차 청년 및 중장년 보다는 노년층에서 가구수·구성비에서 더욱 뚜렷한 증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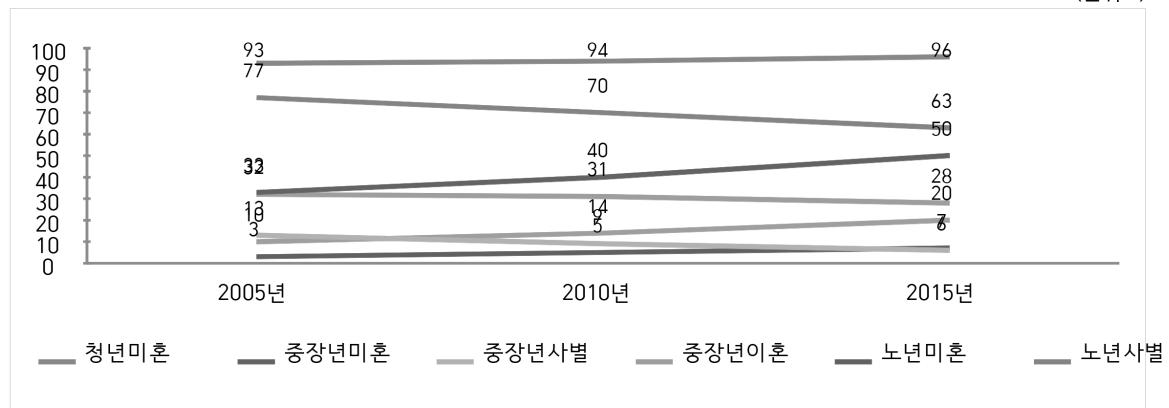
(단위:천명)

연령별	2010년	2015년		2017년	
	가구수	가구수	증감(율)	가구수	증감(율)
합 계	855(100%)	1,115(100%)	260(30%)	1,180(100%)	65(5%)
청년층(20~39세)	442(51%)	535(47%)	93(21%)	563(47%)	28(5%)
중장년(40세 이상)	230(26%)	332(29%)	102(44%)	332(28%)	-
노 년(60세 이상)	183(21%)	248(22%)	65(35%)	285(24%)	37(14%)

○ (혼인상태) 생애주기별로 구분할 때 청년층은 미혼, 중장년층은 이혼/기혼, 노년층은 사별인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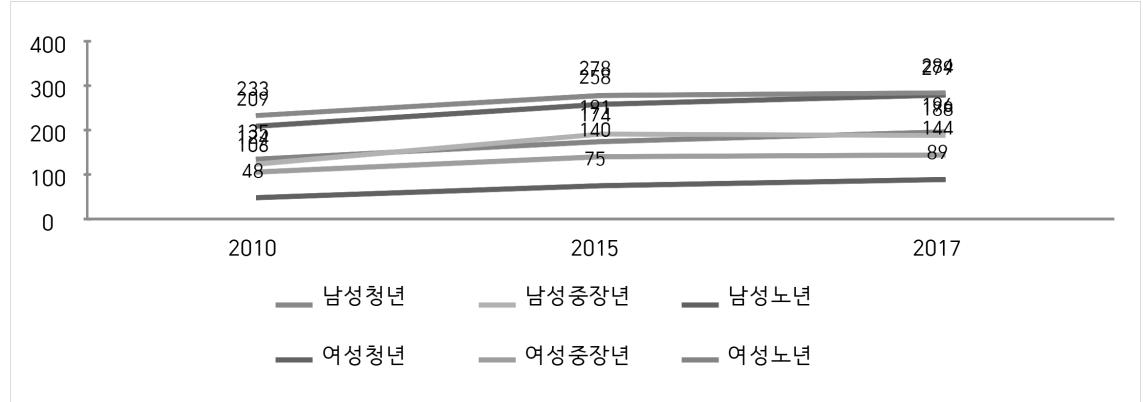
- 연령별 세분화해 보면 미혼은 20~34세(58%), 이혼은 50~64세(53%), 기혼은 45~59세(42%), 사별은 65~79세(58%)에 집중분포
- 중장년의 경우 미혼률이 33%'05년) → 40%'10년) → 50%'15년)로 급증하는 반면, 노년층에서는 사별이 77%'05년) → 70%'10년) → 63%'15년) 감소하지만 미혼/이혼률은 13%'05년) → 19%'10년) → 27%'15년)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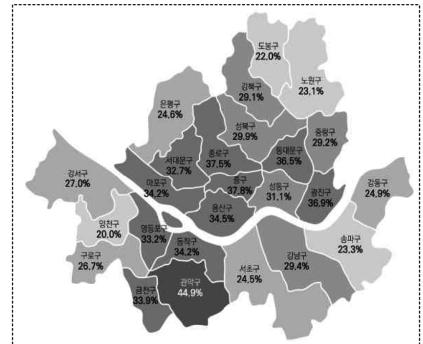
○ (성 별) 전반적으로 여성(52%)이 약간 많으나 연령별로 봤을 때 중장년에서는 남성이 많다가 노년에서 여성이 압도적으로 증가함(2.2배 ↑)

- 여성 청년층 및 남성 노년층도 상대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 여성 청년층 : 48%'10)→ 49%'15)→ 50%'17)
 - ▶ 남성 노년층 : 26%'10)→ 30%'15)→ 31%'17)



- (지역별) 1인가구는 관악(9.1%), 강서(5.8%), 강남(5.3%)에 최다 거주함

- **연령별** 청년은 관악(65%), 중장년은 중랑(37%), 노년층은 도봉(38%)에 많이 분포하고,
 - **성별** 남성은 관악(46.5%), 여성은 강서(53.7%)·강남(57.7%)에 다수 거주하는 편임



〈자치구별 1일가구 비율, 17.6월〉

□ 생애주기별 1인가구 유입경로 다양화 및 장기화 지속

- (유입경로) 청년층은 직장·학업, 중장년은 학교·직장/개인편의·자유/이혼·별거·사별 등 복합적, 노년층은 이혼·사별·별거가 주요원인임
※ 중장년여성의 경우 중장년남성보다 이혼·별거·사별이 상대적으로 높음

세대별	학고 및 직장	개인편의 자유	이혼·별거 사별	이민, 이사 등	가족과의 불화	부모형제 등 사망	기타
청년	67%	19%	1%	6%	1%	-	6%
중장년	23%	27%	25%	6%	4%	4%	11%
(여성)	(22.4%)	(24%)	(34.6%)	(13%)	(3.7%)	(1.8%)	(0.5%)
노년	6%	22%	55%	8%	3%	3%	3%

- (지속가능성) 남성 1인가구의 42.7%는 결혼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결혼 29%, 지금처럼 혼자 살기 27%, 비혈연가구(친구, 지인 등) 와의 가구구성 11.2%를 원하고 있어 성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혼자 살 의향 : 남자(20.3%), 여자(27%), 청년층(16~30%), 중장년(35~62%)

□ 1인가구의 생활상과 욕구

- (좋은 점) 1인가구의 73%는 1인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가구 만족도가 낮아지며, 남성(69%)보다 여성(77%)의 만족도가 높음
 - 한편 자유로운 생활 및 의사결정(39%), 여가시간활용(33%)을 1인 가구의 최대 장점으로 응답
 - 1인가구의 절반은 여가시간에 혼자 TV 시청(57.8%), 컴퓨터게임·인터넷 검색(25.8%), 문화예술활동(25%), 휴식(24.9%) 순으로 야외 활동 등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소극적 여가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어려운점) 1인가구 삶의 힘든 점은 경제적 측면(34.4%)이 가장 높고 외로움과 불안감(27.5%), 가사활동(13.8%), 치안(13.6%), 주변의 시선(10.7%) 순으로 나타남
- (안전실태)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감, 특히 여성청년층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주거지 불안감이 높음



<1인가구 삶의 힘든 점>

- 1인가구의 18.1%는 주거지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1인가구는 남성 보다 훨씬 높은 22.5%가 주거지 불안을 보임
- ▶ 여성 연령별로 살피면 청년층 26.4%, 중장년 18.5%, 노년 20.2%로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중장년·노년층 보다 주거 안전에 더욱 민감함

- ▶ 주거 불안의 원인은 보안시설·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35.1%), 주거지 위치(12.5%), 가로등·CCTV 등 골목길 안전시설(10.1%) 부족순임
- (주거유형) 1인가구의 77.3%는 전·월세 및 비주거지(고시원, 원룸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월세비중이 63%로 주거불안정 및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음(주거비용 지원 필요)
 - 주거형태 : 월세 51.4%, 전세 25.0%, 자가 18.2% 등
 - 월세 거주비율 : 청년 63%, 중장년 51.3%, 노년 30.4%
 - (주거 불안정성 가장 높은 지역 : 관악 61.3%, 강남 60%)
 - 세대별 주거형태

주거형태	고시원·원룸 등	연립/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1인가구	23.6%	31.4%	21.4%	14.2%	9.1%
서울시평균	5.6%	20.2%	42%	2.1%	30.1%

- ※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고사원·원룸 비중이 34.2%로 급증(남성 37.6%, 여성 30.4%)
- (건강·돌봄) 노년층으로 이동할수록 신체건강 염려, 경제적 빈곤과 결합된 의료비 부담 및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음
 - 노년층은 신체건강이 좋지 않고(44%) 경제적 빈곤과 결합되어 의료비 부담(39%)과 의료기관 이용 등(20%)에 어려움이 커 이에 대한 동행 서비스 등 의료지원체계 필요
 - 청년 1인가구의 62%는 한끼 대충 식사로 공동취사 지원 부족

1인가구는 주거·소득 열악, 노후준비 부족, 건강·돌봄 위기, 안전 불안,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경험 등 다양한 욕구와 잠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정책수요별 맞춤형 대응 필요

서울시 1인가구 사업 추진현황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공간 커뮤니티) 지원('18년~, 가족담당관)
 - 공공기관의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4개 자치구, 5개소)
 - 취미활동, 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공간 디자인, 개보수 및 비품 구입비 지원



〈금천구 청춘밸딩〉

〈시흥4동 이음터〉

〈장위1동 다다익선〉

〈은평 청년새싹공간〉

〈변동 사랑방〉

 - 중장년 남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단체 등 7개소)
 - 1인가구 탐구생활, 모두의 사랑방, 밥터디, 나도 혼자산다 등 2200여명
 - 청년 1인가구 인기취업강좌 운영 : 4개 자격증 27개 세부과목 사이버교육 제공
 - 1인가구 온라인 시민여론조사 실시(400명 대상) 후 인기취업강좌 선별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임차·계시 및 1,143명 수강 및 43명 수료

- 여성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여성안심·안전서비스 제공('16년~, 여성정책담당관)
 - 안심이앱구축 : 24시간 여성 스마트안심망을 통한 위기상황 모니터링·위기대응
 - 귀가스카우트 및 안심택배 운영 등 : 여성안전귀가 및 안심택배를 통한 예방지원
- 노년 및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돌봄·건강 등 대응('17년~, 복지정책실)
 - 고독사 예방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에 대한 주민모임 및 생필품 지원
 -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건강관리, 통합돌봄
- 청년 1인가구 임대주택 제공, 청년수당 지급('16년~, 주택건축본부·청년청)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 양질의 저렴한 역세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대학생/청년 등 주거안정 도모('17~'18년, 17,000호)
 - 청년수당 : 미취업청년에게 구직활동 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 6개월)

해 외 사례

□ 영국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한 대응('18.1월, 고독부장관 임명)

- 영국 정부 종합대책 발표('18.10.)에 따라 일반진료 병원에서의 외로움을 경험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동과 자원봉사 서비스 연계(쿠킹 클래스, 걷기운동 동아리, 예술집단 등)하여 사회적 진단 및 처방 조치
- 지자체 우스터셔주에서는 장년층 고립 감소를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차원에서 외로움, 사별을 겪는 사람들에게 외로움지수가 높아지면 수당지급

□ 공동체주택 공급 및 저소득층 주택수당 등 주거중심지원(스웨덴, 미국, 일본)

○ 스웨덴 공동주택정책 : 코하우징, 셰어하우스

- 가구별 침실/거실/주방, 취미공간, 공용식당
- 주택보조금 : 소득이 낮은 청년과 노인에게 지급
- ※ 페르드크네펜(40세 이상 43가구 입주) : 7층 규모로 종합공간



〈페르드크네펜 공동부엌〉

○ 미국 주거지원 정책 : 싱글룸(사생활) + 공용공간(공동체 생활)

- SRO(Single Room Occupancy) : 노후호텔 /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1인가구 지원
- 주거선택 바우처(극빈층 임대료 보조), 공동생활주택 등



〈노후주택 리모델링 SRO〉

○ 일본 주거지원 정책 : 쉐어하우스 및 민간임대주택 지원

- 코하우징(1인가구+1인가구), 쉐어 하우스(독거노인, 학생 등 대상), 하우스 셰어링(지인과 동거)
- 민간임대주택 집세보조(도쿄 신주쿠/18세~28세 1인가구, 아라카와구 / 70세 이상 1인가구, 월1~4만엔/3~5년)



〈일본 교토의 코하우징〉

시사점

□ 가족의 기능과 가치관의 변화, 고령화 및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로 누구나 “홀로” 또는 “같이 살기”가 반복되며 가구 구성의 유동성이 증가되어 1인가구 증가 추세가 모든 세대로 확장되고 있음

→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적 정책(가족정책 분야)과 취약가구의 사회통합(복지정책 분야) 정책과의 융·복합적 대응 필요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및 생활능력 향상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 제고
 - 생애주기별, 성별, 결혼여부 등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망, 여가 및 시간관리 등에 있어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갖고 있음
- 1인가구에 의한, 1인가구를 위한 상호호혜 기반의 생활권 사회적유대관계 강화
 - 초기 1인가구와 중장기 1인가구, 30대 비혼 1인가구와 30~50대 기혼 1인가구, 청년 1인가구를 자녀로 둔 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 기반한 건강 가족관계 유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1인가구 중 경제력과 주거여건에 따라 식생활, 안전, 사회적 고립 등 생활상의 다양한 제약과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실질적 지원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대상이 아니면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이하 저소득 1인가구의 경제역량 강화 지원(주거, 일자리 등)
 -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경제활동 발굴 및 활성화 지원

추진목표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예방

다양한 소통과
정보공유로
활기찬
일상유지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인식 확산

추진 과제

1. 나눔과 돌봄

- 지역 맞춤형 취약 1인가구 특화사업
- 1인가구 나눔과 돌봄은행 구축 운영
-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고령 1인가구 건강·안전 서비스 지원

2. 소통과 유대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 행복 1인가구 생활정보지 제작배포
- 1인가구 원가족 유대지원 강화
-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다양한 1인가구 소셜다이닝 등 모델 발굴·확산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운영

3. 자립과 안전

- 1인가구지원센터 및 생활코디네이터 확충
-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및 최소시설 기준 마련
- 청년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SS존, 안심이)
- 1인가구 등 다양성 가족 존중 캠페인
- 1인가구 공동체주거 활성화 지원

핵심성과지표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서비스참여 대상 확대(%)
 - '19년 1%(1.2만명)
 - '23년 10%(12만명)

- 서울시 1인가구
생활만족도 증대(%)
 - '19년 59%(한국평균)
 - '23년 65%(OECD평균)
 - ※ 원가족 유대관계 척도포함

- 삶의 질 향상을 지원
하는 생활코디네이터
확충(명)
 - 인원 : 0명('19년) →
52명('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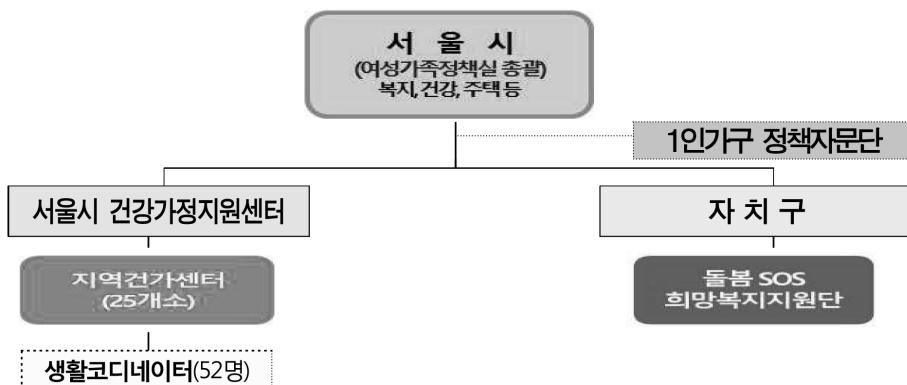
III 1인가구 지원 추진체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2023년(총 5개년 계획, 연차별 확대)
- 추진방향
 - 1인가구 자체를 다양한 가정의 하나로서 원가족과의 관계, 사회적관계망에 초점
 -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 적응, 자기돌봄 등 건강성 증진 및 미래문제 예방 대응
 - 1인가구 관련 사업(돌봄, 주거, 가족 등) 연계 통합적인 상시지원체계 구축

□ 추진체계 및 역할

- 협력체계 구축
 -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확립(실무 간담회, 실·국장 연석회의 등)
 - 민간과의 거버넌스 협력체계 확장(관련기관/단체, 협의회, 전문가그룹 등)



- 전달체계 확립

- 콘트롤 타워 설치(1인가구 지원센터) : 市 건강가정지원센터 内
 - ▶ 1인가구 생활코디네이터 양성, 매뉴얼 및 행동지침 마련 등
- 1인가구 밸굴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지원 : 區 건강가정지원센터 内
 -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역자원과의 연계 지원(돌봄 SOS, 희망복지지원단 등)
 - ▶ 위기 1인가구 지원 : 사회적관계망 프로그램, 찾동 등 지역사회자원시스템 연계
-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통한 쌍방향 소통체계 확립
 - ▶ 실시간 정보제공, 오프라인 연계 등 실질적인 대응시스템 운영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

① 지속적 사업 모니터링 점검 및 성과관리

○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분야별 개선방향, 세부적인 보완방안 등)
- 시민참여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모니터링을 통한 보완사항 발굴)
※ 모니터링단(50명) : 자치구별 2명씩 시민대상 참여모집

○ 성과관리(가족담당관)

-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성과수준별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및 보완사항 발굴

② 생활수준 및 정책수요 실태조사(3년주기)

○ 세부과제로 발굴·개선 등 추진계획 수립·반영

○ 연령/성별/지역별 생활수준 현황(50개 항목, 5천명 조사)

③ 연단위(2019~2023)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사업별 컨설팅 → 문제점 진단 → 해결방안 제시

○ TF 피드백 제공(확대, 수정, 폐지) 시행계획 평가·환류

□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19.1.16 개정)

- 제3조(정의)2의 2 :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 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행 법제에서는 1인가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 민법은 기본적으로 가족단위지원, 가족이 없는 1인가구 지원대상 배제
- ▶ 주거지원정책에서도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1인가구 불리
- ▶ 소득공제에서도 1인가구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불리

○ 서울시 사회적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16.3.24 제정)

□ 그간의 추진경과

○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 준비(시장 요청사항) : 2015.9월~

- 열린시장실 개최(자유토론, '15.9월)
 -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서울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발표
 - ▶ 1인 가구 종합대책 수립요청(원순씨와 통계시판, '15. 9.)
- 1인가구 종합대책 관련회의 개최(여성가족정책실장, '15.9월)
 - ▶ 1인가구를 위한 기존 사업 검토, 신규과제 제안 등(관련 실국장 참석)
- 1인가구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강조(민선7기 정책간담회, '18.11)

○ 1인가구 종합대책 수립 법 제도 · 연구 기반마련 : 2016.3월~

- 전국 최초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정('16.3월, 서윤기 시의원)
-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17. 4~12월, 여가재단)
 - ▶ 일자리, 주거·안전, 사회적관계망, 건강 등 6개 취약영역별 27개 과제 도출
-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 운영('18. 4~12월)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3회) 및 시민정책토론회 개최('18.12월)
-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1인가구 사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19.5월)

○ '18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시범사업 추진 : 2018.1월~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 4개구, 5개소
- 중장년 남성 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 4개 기관, 2,862명 참여
- 청년 1인가구 인기취업강좌 운영 : 27개 강좌(서울시 평생교육포털)
 - ▶ 1인가구 대상 온라인 시민여론조사 실시(400여명)로 인기강좌 선정
 - ▶ 시평생학습포털에 4개 전문자격증 27개 과목 임차제시('18.12~)
- 1인가구 리모델링공간 우수사례 현장방문 및 의견청취 : '19.2월
 - ▶ 시흥4동주민센터(솔로들의 아우성), 번동종합사회복지관(청중장년 연결고리)

○ '19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 2019.4월~

- 커뮤니티 공간지원(7개 사업) : 양천구 임대아파트 공간 활용 마을공동부엌 등
- 소생활권 맞춤형(12개 사업) : 강동구 고시원공동체,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11개 사업) : 동대문구건가센터 생활도움(가사,돌봄,봉사) 등
-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화여대 산학단)
- 1인가구 ABC 생활정보지 '나도 혼자 산다' 제작·배포(동주민센터등, 3천부)

3대 추진목표 및 17개 추진과제

지표명	성과목표	구분	추진부서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예방			
지역 맞춤형 취약1인가구 특화사업 지원	45개소	신규	가족담당관
1인가구 나눔과 돌봄시간 은행 운영	5,200명	신규	가족담당관
중장년 1인가구 교육, 상담, 커뮤니티 운영	250명	기존	인생이모작지원과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240사업	기존	지역돌봄복지과
고령 1인가구 건강안전서비스 지원	12,500가구	기존	어르신복지과
다양한 소통과 정보공유로 활기찬 일상유지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구축운영	신규	가족담당관
1인가구 ABC 생활정보지 제작 발간	10,000부	신규	가족담당관
1인가구 원가족 유대지원 강화	25개센터	신규	가족담당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다양한 1인가구 소셜다이닝 등 모델 발굴·확산	75개소	신규	가족담당관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운영	675개소	신규	가족담당관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인식 확산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및 생활코디네이터 확충	26센터/52명	신규	가족담당관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20,000명	신규	가족담당관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 및 최소시설 기준 마련	56,254명	신규	건축기획과
청년1인가구 사회성과사업 추진	100명	신규	가족담당관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25개 자치구	기존	여성정책담당관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존중 캠페인	2,000명	신규	시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공동체주거 활성화 지원	100개소	신규	가족담당관

M E M O

M E M O

M E M O

M E M O

M E M O

2019 1인가구포럼

발 행 일 | 2019년 7월

발 행 처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주 소 |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

전 화 | 02-318-0227

팩 스 | 02-318-0228

기획·편집 | 기획총괄팀

디 자 인 | 서도기획

2019

인간포럼